

효제문자도(孝悌文字圖)의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활용 연구

- I. 서론
 - II. 세속화(世俗畫)와 효제도(孝悌圖)
 - III.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정의
 - IV.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정지원*

초 록

18세기말부터 19세기말까지 한 세기를 아우르는 조선 후기 민중 예술은 조선의 상층민과 하층민의 신분격차에 반(反)한 새로운 예술의 한 장르였으며, 조선 후기 시대상과 사회계층의 변혁을 시도한 서민문화이기도 하였다. 한국 민중 미술의 발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듯 대중 미술의 개념으로 시작된 민화는 그 기능과 장식적 호사가 여느 도상(Iconography)의 이미지에 굴하지 않는 화려한 기법을 구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화법은 결국 하층민이 시도한 그림이라하여 도상의 개념이 아닌 세속화(世俗畫)의 개념으로 그 의미를 격하시키기도 하였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의 격변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어렵게 이어져오고 있는 조선 후기 문자도(文字圖)는 저자거리에서 하층민이 속화(俗畫)로 그리던 혁필화에 이르기까지 민중미술의 대변자로서 그 명맥을 어렵게 이어오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민중 예술의 독특한 장르인 효제도(孝悌圖)를 중심으로 효제도(孝悌圖)의 의미와 다양한 시각적 표현, 그 시대의 생활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영상 미디어 매체로 활용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제안함으로써 전통문자도의 아날로그적 스토리텔링을 영상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기법의 문자도(文字圖)로 연출함이 어떤 홍보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의 전통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미디어정보를 통해 아름다운 겨레글자를 알리는 국가 상징적 키워드로 재탄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효제문자도(孝悌文字圖)를 통해 젊은 차세대들에게 전통문화의 고귀한 가치를 전승하는 데 의의가 클 것이며, 현대 표현 기법으로의 재해석을 통해 선조들의 시대정신을 계승하고 이해시키는데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 콘텐츠의 여러 아이템들을 영상미디어와 융합한 뉴미디어 콘텐츠로 재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효제문자도,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스토리텔링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조선 후기 민중 미술인 민화의 기원은 고구려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민화의 활발한 역사가 재조명되기 시작한 시기는 조선시대 후기 중인계급이 경제적 부유를 누리면서 시작된 18세기 말~19세기 말까지의 시기이다. 조선후기 이전까지의 역사를 통해 보면 그림이나 회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는 오로지 양반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전유물 같은 영역이었다. 그러나 18세기부터 시작된 중인계급의 경제 활동을 통해 이들은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기반으로 상층민의 영역인 사대부가의 회화(繪畵)의 문화를 동경하기 시작하였고 그들만의 민화가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일명 속화(俗畵)라 불리기 시작한 이들의 그림은 세속적 그림이라 하여 상층민들은 그 의미를 폄하하기에 이른다. 속화는 주로 여인의 방안 병풍이나 장식용 족자 액을 막는 그림, 장식용 치레그림 등으로 기득권층을 향한 암묵적 도전이 되기도 하였다. 결국 속화는 민화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시대변화에 따른 계층 간의 신분 변혁의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적 대중 미술의 시작점이 되는 태동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민화의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본 논문은 민화의 여러 표현분야 중에서도 문자도의 예술적 가치를 인식하고 활자 속의 민간 생활상을 그림문자로 표현한 조선 후기의 디자인 콘텐츠를 찾아내고자 한다. 그 연구의 중심 키워드로 효제문자도(孝悌文字圖)의 개념과 의미, 이 소재를 통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표현방법, 키네틱 타이포의 사례분석과 뉴 미디어아트의 한 장르로써 활용될 경우의 사회적 기여가치 가능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스토리 안에서 내재된 사상, 정서적 감흥, 다채로운 표현의 변화를 통해 미디어 아트 of 새로운 영상 타

* 이 논문은 2016년도 한서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포그래피인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영역 확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논문의 취지를 둔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효제문자도(孝悌文字圖)의 디자인 분석을 위해 조선 후기 (18~19세기말) 민화의 배경과 가치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문자도(文字圖)는 그 표현 기법이 다채롭게 활용되어 각각의 차별화된 디자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효제문자도(孝悌文字圖)는 여느 문자도와는 다른 스토리와 채색기법, 서체 필법의 다양한 시도가 두드러진다. 본 논문은 시각적 조형 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축약된 효제도(孝悌圖)를 타이포그래피의 전통콘텐츠로 인식하고, 디자인 정보시대에 제공할 수 있는 융합적 표현기법의 시도로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인 민화는 대개 현대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 많은 아티스트들의 예술적 작품소재로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전통상품 컨셉으로도 자주 활용되고 있기는 하나 활용 영역의 폭이 극히 좁고, 디자인이 개발되지 못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한 한계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논자는 이를 영상매체로 활용함에 있어 예술적 가치를 둘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자도의 예술적 가치와 조선시대 민중들의 희노애락(喜怒哀樂), 정서(情緒), 사상(思想), 신념(信念) 등의 가치관(價値觀)을 연구하고자 하며 예술적 기법으로서의 키네틱 타이포의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효제도를 소재로 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현대적인 재해석이 어떤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세속화(世俗畫)와 효제도(孝悌圖)

1. 속화(俗畵)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19세기 전반기에 활약한 이규경의 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 하나는 민간 사회에 유포된 이런 그림을 속화라 불렀던 점이고 또 하나는 이미 원래의 도상(Iconography)이 파괴되어 그 의미를 모른 채 전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도상(Iconography)의 붕괴 현상은 그것이 다량 생산되어 상품화되고 일반화될 때면 일어나는 현상이다. 여기에 속화(俗畵)라는 말은 장르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공식적인 장르에 없는 그림이라는 뜻이 강하다. 속화(俗畵)라고 하면 우리는 단원이나 혜원의 풍속화라고 부르는 유형의 그림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것도 당시에는 ‘속화(俗畵)’라고 불렀다. 공재 윤두서가 그린 ‘돌 깨는 인부’ (石工攻石圖) 그림에 석농 김광국은 화평(畫評)을 쓰면서 “이런 그림은 세속에서 말하는바 속화(俗畵)이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18세기 들어서면 종래의 화목(畫目)에 없던 그림들이 마구 등장했는데 세속적인 내용을 그린 그림도 속화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러한 속화의 탄생과 유행은 곧 장르 개념의 해체 현상으로 보인다. 이를 문화사적으로 설명한다면 새로운 사회적 기류에는 기존의 규범과 형식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내용적 변화가 따르게 되는데 지배층의 교양과 멋의 상징물이었던 그림을 세속에서도 적절히 변용시키면서 흉내 내는 도전과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것을 기존 집 질서에서 본다면 모두 속된 의미의 그림인 ‘속화’ 였던 것이다.¹⁾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발현된 조선의 속화는 그 시대의 생활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조선 중기 철종시대의 상층 계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층민의 상류계급으로의 상승은 경제적 부(富)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결국 상층민의 문화를 함께 향유하고픈 중층 신분의 문화적 향유를 누리고 싶어 하기에 이르렀고, 이른바 속화라는 민중예술의 태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었다. 기존의 상층계급인 양반은 이러한 문화의 공유를 거부하면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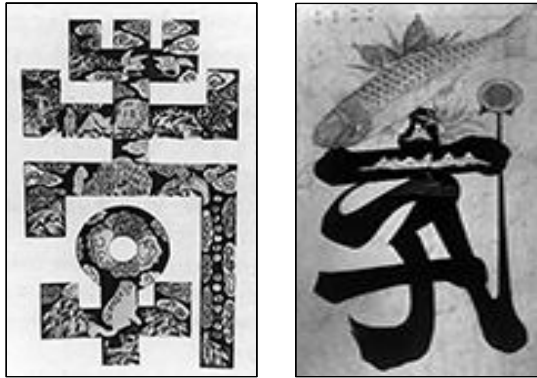
1) 유홍준, 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8, pp.13-15.

하층민만의 속된 그림으로 격하시키며 이를 속화라는 개념으로 깎아 내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사회변동의 패러다임은 서서히 조선시대 후기 예술문화를 잠식하면서 그 시대의 사회 계급의 변화로 자리 잡아 결국 민화라는 민중 예술을 탄생시킨 것이다.

2. 효제도(孝悌圖)의 도상(Iconography)의 개념

1) ‘효(孝)’

‘효(孝)’ 자에는 왕상(핀나라 사람)이 한겨울에 계모에게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 드린 ‘왕상빙리(王祥冰鯉)나 맹종(뫼나라 사람)이 죽순을 따낸 ‘맹종설순(孟宗雪荀)’의 효행고사(孝行古史)를 주로 그려 넣었다. 상징물로는 잉어와 죽순이 그려졌다.²⁾



<그림 1> ‘효’ 1, 2³⁾

왼쪽의 ‘효(孝)’ 자는 물고기의 디테일한 표현묘사와 필묵의 힘찬 필체가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의지가 강하게 전달되고 있다. 반면, 오른쪽의 ‘효(孝)’ 자는 상당히 추상적 형태를 나타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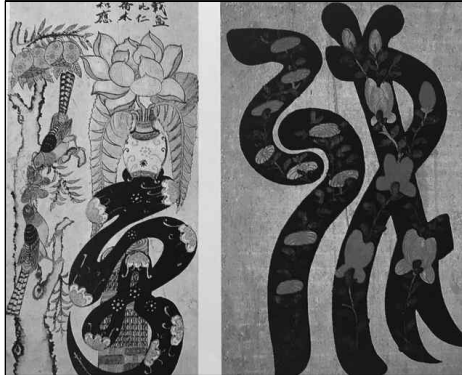
2) 유흥준, 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8, pp.30-32.

3) 유흥준, 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8, pp.30-31.

있는데 서체의 가독성은 다소 떨어지나 서체의 간결함에서 오는 메시지의 전달력과 도상의 화려한 그래픽이 현 시대성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히 앞선 디자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디자인적 측면에서의 해법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

2) ‘제(梯)’

제(梯,弟) 자는 「시경」에 형제의 우애와 정을 읊은 ‘상체지화(常棣之華)’에 따라 옥매화와 함께 화목을 나타내는 할미새나 집비둘기 등 새 한 쌍이 등장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桃園結義) 고사가 묘사되기도 하였다.⁴⁾



<그림 2> ‘제’ 1, 25)

삼국지의 세 장수의 결연한 의지를 부각시켜 줄만한 스토리를 충분히 표현한 수준 높은 도상(圖像)이다. 복숭아꽃의 만개한 이미지와 정원의 표현, 장수들의 모습이 의지를 다지는 모습으로 느껴지며 화법 또한 화려하게 잘 어우러져 있다. 필체의 굵은 획은 장수의 기개를 느낄 수 있는 달필(達筆)임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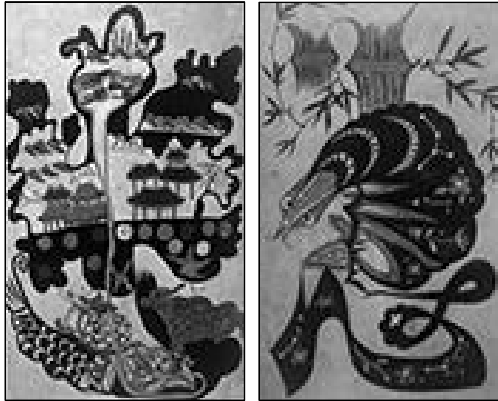
4) 유흥준, 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8, pp33-34.

5) 유흥준, 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8, p.33.

3) ‘충(忠)’

‘충(忠)’ 자는 한(漢)의 영양왕(滎陽王)이 초(楚)의 항우(項羽)에게 포위되었을 때 충신 기신(紀信)이 초군(楚軍)을 속여 물리친 고사인 기신광초(紀信誑楚)의 내용이 담겨졌다. 그리고 충절을 상징하는 대나무와 어변성룡(魚變成龍)을 축하하는 가재 모양의 하고(蝦蛄)와 조개, 거북 등이 함께 그려졌다.⁶⁾ 두 그림의 형태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필법의 구사와 그림의 표현 방법이다. 왼쪽 하단의 그림은 서체가 유연하고 자유롭다.

또한, 획 내부의 그래픽 표현이 정갈하고 절제된 기법을 구사하고 있는 반면, 오른쪽 그림은 필법이 장대하고 획의 선이 굵어 획 내부에 여러 가지 이미지 구성 요소들이 마치 풍경을 보는 듯한 공간구성이 잘 표현되어 졌다. 새우의 도상은 상당히 추상적이면서도 디테일한 표현이 우수하며 현대의 패턴으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수한 표현기법을 구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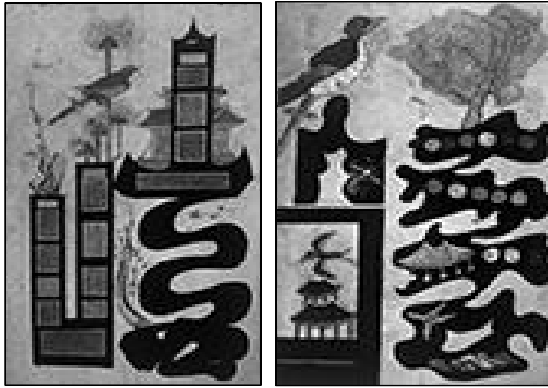
<그림 3> ‘충’ 1, 27)

6) 유흥준, 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8, pp.30-32.

7) 유흥준, 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8, pp.36-37.

4) ‘신(信)’

‘신(信)’ 자는 한(漢)나라 때 상산(商山)에 은거하여 바둑을 두며 지냈다는 백발의 네 노인의 고사가 그려졌다. 그리고 서왕모(西王母)의 왕립에 대한 고사를 형상화한 표현으로 편지를 입에 물거나 손에 든 고니(또는 흰기러기)와 청조(靑鳥), 복숭아, 연못 등도 함께 나타난다. 사람 얼굴 형태의 새와 또 다른 새 청조가 마주보고 소식(편지)을 전하는 모양이 많이 그려졌다.⁸⁾



<그림 4> ‘신’ 1, 2⁹⁾

<그림 4>의 이미지는 레이아웃상의 포지션과 그래픽의 표현 방법이 흡사하고 calligraphy의 유연한 필법과 이미지 구성의 스토리 콘텐츠가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문자도 내부의 절제된 원형의 이미지는 추상성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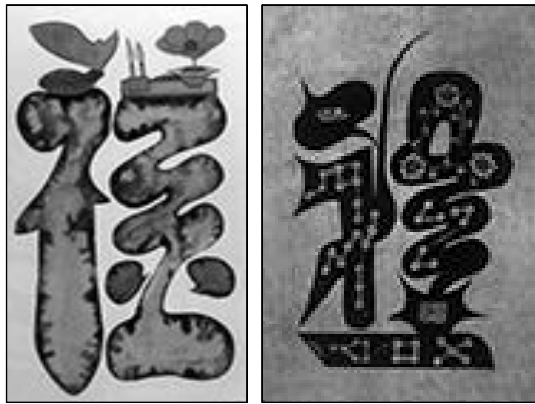
5) ‘예(禮)’

예(禮)’ 자는 글과 수리(數理), 예의의 근본으로 칭해지는 복희씨가 왕이 되어 천하를 다스릴 때의 고사인 ‘하도낙서(河圖洛書)’의 내용이 담겨졌다. 그 도서를 읊었다는 신귀(神龜)를 뜻

8) 유흥준, 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8, p.38.

9) 유흥준, 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8, pp.39-40.

하는 거북이나 수리를 뜻하는 별자리 모양의 하도낙서(河圖洛書)가 표현되기도 하였다.¹⁰⁾ <그림 5>의 이미지는 두 개의 이미지가 서로 달라 동시대의 작업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다채롭다. 왼쪽 이미지는 절제된 간결미가 있지만 오른쪽 이미지는 수목화 기법의 번진 표현이 서로 색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백의 활용 규모와 획마다의 공간 구성이 짜임새 있게 유지되었다. 획의 굵기와 적절한 일러스트의 조화는 단조로 울 수 있었던 서체의 필법에 생명을 불어넣은 효과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림 5> . ‘예’ 1, 211)

6) ‘의(義)’

‘의(義)’ 자는 표현되는 삼국지의 도원결의(桃園決議)고사가 그려지면서 한 쌍의 꿩이나 새가 장식되고 전체는 건물 형상으로 나타낸 예가 많다.¹²⁾ 필법이 장엄하고 무거운 듯 보이며 장수들의 결연한 의지와 우정이 돋보이는 서체이다. 장수들의 의리와 기개, 결속으로 다져진 형제애가 문자를 통해 보여 지는 듯하다. 오른쪽 도상은 학의 힘찬 날개의 균형감을 유지하고 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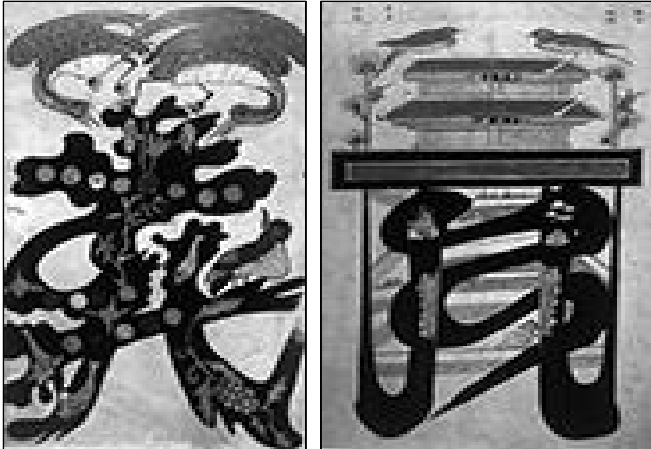
10) 유흥준, 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8. p.41.

11) 유흥준, 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8, pp.41-43.

12) 유흥준, 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8. p.44.

으며, 왼쪽 도상은 새의 대칭정렬이 안정감을 준다. 문자 안쪽의 새와 물고기, 포도, 꽃등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 정갈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체 바깥쪽으로 배치된 동물문은 서체의 자유스러운 표현을 유려한 필치로 극대화 시켰다.

<그림 8>의 이미지는 같은 의미를 지닌 내용이어도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틀리다. 왼쪽이미지는 시각적인 그림들이 많지만 오른쪽 이미지는 추상적인 패턴형식 의 전혀 다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같은 내용을 담은 이미지도 결국 어떤 구상(畫像)이 구현되는가에 따라 전혀 색다른 이미지를 연출한다. 상당히 세련된 패턴을 적용한 이 기법들은 현 시점에서 보아도 전혀 뒤지지 않는 여러 표현기술을 능숙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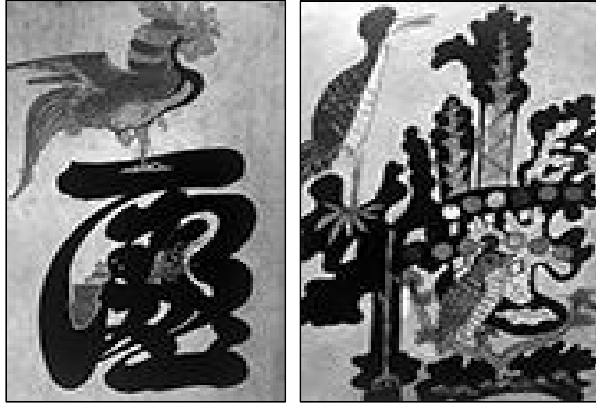
<그림 6> ‘의’ 1, 213)

7) ‘염(廉)’

‘염(廉)’ 자는 요 임금 때 속세를 떠나 산속에 은거한 고사(高士)소부(巢父)와 허유(許由)의 모습을 담기도 하였다. 또 수 천리를 날다가 배가 고파도 조파위는 먹지 않는다는 봉황이 등장하는 것이 통례이다.¹⁴⁾ 때가 되면 물러날 줄 아는 도리를 상

13) 유흥준, 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8, pp.44-45.

징하는 개의 뒷걸음질 하는 모습과 가재 등이 등장한다.¹⁵⁾ <그림 7>은 양쪽의 이미지 표현이 확연히 다르나 작품 속의 스토리 키워드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愚’ 1, 216)

8) ‘치(恥)’

‘치(恥)는 백이, 숙제의 고사를 담았다. 숙제는 은(殷)의 제후 고죽군(孤竹君)의 큰아들과 셋째아들이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둘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수양산에 들어갔는데 주(周)의 무왕(武王)의 통치가 옳지 않다고 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고사리를 캐 먹고 살다가 죽었다는 일화이다. 이에 따라 백이, 숙제의 천추청절 수양매월(千秋清節首陽梅月)을 형상화한 매화도와 월상도가 표현된다. 그리고 두 사람을 기리는 제각(祭閣)이나 위패가 그려지며 거기에 ‘백세(百世, 萬世)토록 청풍(淸風)을 드날리는 백이와 숙제의 비(碑)’ 라는 뜻으로 “백세풍이제지비(百世淸風吏齊之碑)” 라는 명문을 써 넣기도 하였다.¹⁷⁾ <그림 8>의 이미지는 같은 의미를 지닌 내용이어도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 왼쪽 이미지는 시각적인 그림들이 많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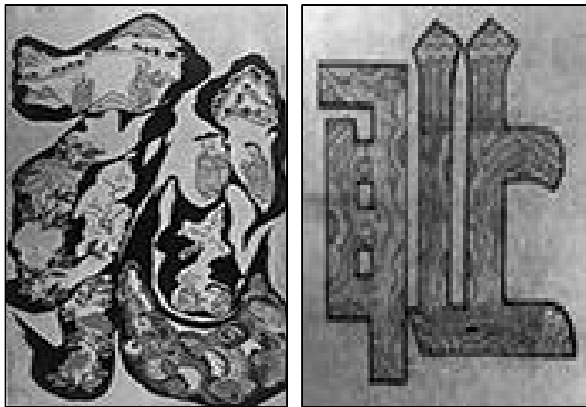
14) 유홍준, 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8. p.47.

15) 나정태, 『민화그리기』 1998, p.72.

16) 유홍준, 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8, pp.48-49.

17) 유홍준, 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8, p.50.

만, 오른쪽 이미지는 추상적인 패턴형식의 전혀 다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같은 내용을 담은 이미지도 결국 어떤 구상(畫像)이 구현되는가에 따라 전혀 색다른 이미지를 연출한다. 상당히 세련된 패턴을 적용한 이 기법들은 현 시점에서 보아도 전혀 뒤지지 않는 여러 표현기술을 능숙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이처럼 충효(忠孝)삼강오륜이 강조되었던 것은 신분 사회의 분열 조짐이 부각되던 영, 정조 시대에 왕권 중심의 강력한 집권층이 정치 안정화를 모색하며 신분적 위계질서를 바로잡으려던 시도를 설명해 준다.



<그림 8> ‘치’ 1, 218)

III.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정의

종교 서적에서 주로 쓰여 졌던 활자체는 중세 수도승들에 의해 집필된 필사체가 시초가 되어 르네상스 이후 점차 장식적인 형태의 서체로 활용되면서 그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스타일의 금속활자체가 개발되어지게 되었고, 이탈리아 로만체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서체가 정의되었고, 여러 기법의 장식서체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장식서체는 주로 브랜드

18) 유흥준, 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8, pp.51-52.

로고 타입에 활용되어 기업이나 단체, 방송 채널 로고에 활용되고 있다. 대개는 캘리그래피로 디자인하거나 변형서체와 타입페이스 자체를 개발하기도 한다.

장식적 개념의 타입페이스 디자인은 여러 용도로 쓰여져 오늘날에는 문자의 움직임을 통한 타이포그래피의 예술적 영역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 타이포그래피는 2D, 3D의 표현을 넘어 움직이는 타이포그래피 즉,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라는 영상 타이포그래피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영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After Effect, Flash등의 영상 효과 전문 프로그램의 활용을 통해 타이포그래피의 영상기법과 예술적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웹 디자인의 Usability 자체가 심미성을 요구하며 동시에 전달력과 독창성을 담은 글자 구성을 통해 예술적으로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일반적으로 타입 자체가 주가 되는 움직임, 즉 무빙 타이포그래피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컨셉에 여러 객체의 글자들이 설정된 목표에 맞춰 움직임과 사운드를 융합한 형식이다.

1.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의미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moving text혹은 motion typography라고도 한다. 2D Typography의 영역을 넘어 글자가 사운드와 함께 움직인다. 컨셉에 따라 움직임과 사운드가 구성이 되며 감성과 메시지의 전달이 그 어느 매체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서체위에 여러 기법의 Type Effect가 덧입혀져 글자 구성 디자인의 강력한 구성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음악에 어울리는 움직임과 자유로운 정렬방식, 다채로운 서체의 역동성, 비례와 규모의 다채로운 구성, 글자의 형태와 컬러, 사운드, 배경이미지와와의 공간연계성이 탁월한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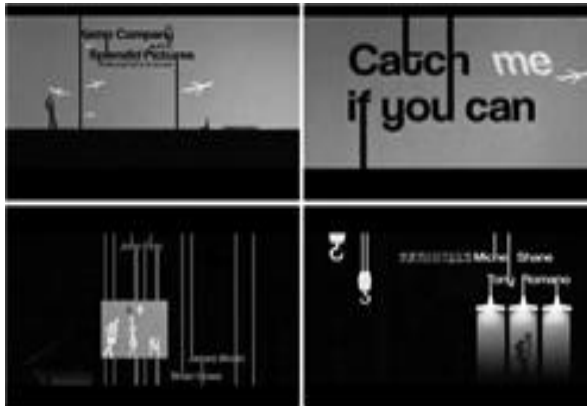
2.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원리와 특성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구성 요소는 서체(typeface), 아이덴티티(identity), 속도(speed), 감성(emotion), 인지(recognition), 정렬(alignment), 모션(motion), 리듬(rhythm), 가독성(reading), 박자(Tempo)등이 있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구성 요소들은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2D 그래픽도 지면 공간 내에서의 동일한 요구조건들을 수반하지만 특히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모션 텍스트는 더욱 이를 충실히 지켜주어야 한다. 타입페이스와 리듬, 동세가 컨셉과 적절히 융합되어야 하며, 개성이 뚜렷한 정체성과 목적성을 지녀야 한다. 스토리보드의 구성은 컨셉이 지니고 있는 성격을 드러내주며 서체, 스토리텔링, 아이덴티티의 명확한 메시지를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의 적절한 활용은 공간과 글자의 형태가 컨셉의 예술적 상호작용을 통해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예술성, 기능성, 심미성, 가독성, 장식성 등에 대한 상호 작용을 의미한다.

움직이는 이미지의 영역 안에서도 명확한 가독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스토리의 전달의 중요한 핵심 요구사항이다. 키네틱 타이포의 중요한 특성은 시각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진행, 즉 RSVP(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는 인접한 텍스트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고 단어의 크기와 같은 타이포그래피적 형태를 그때마다 조작하거나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텍스트를 작은 영역에 보여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형태의 시간적 특징(Describing Temporal Forms)은 색과 서체는 타이포그래피를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대체로 형식적인 차원을 말한다. 어조와 목소리(Tone of Voice)는 음절(Syllables), 단어(Words)와 구(Phrases) 등의 발음 단위들이 분절될 때의 발음상의 변이로 정의한다. 이러한 분절들의 메세지 억양을 타입의 크기 조절, 형태 변형, 중량 조절 등으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청각적인 음성에서 시각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작용은 단어 자체의 상징성을 넘어 글자의 변형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가 커진다.¹⁹⁾

3.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디자인 적용사례

<그림 8,9>는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해외사례이다. <그림 8>은 영화 :Catch me if you can “이라는 영화이다. 시퀀스 디자인을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로 디자인하였다. 영화 속 등장인물의 다면적인 이중성과 고도의 속임수를 통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Typography와 Illustration의 절제된 움직임이 긴장감을 더해준다. 특히 문자의 획이 길어지는 효과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듯한 typography의 연속성은 line drawing 기법으로 활용하였다. Title Sequence Design 만으로도 충분히 전체 영화의 긴장감과 영화의 스토리를 유추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다. <그림 9>는 Jan Avendano의 “Running Animation” 의 스토리보드이다. 절제된 Text Type의 간결한 영상미와 수평의 레이아웃을 유지하며 속도감을 내준 모션 기법이 독창적이다.



<그림 8> 한글타이포그래피의 모든 것, “Catch me if you can” 의 Kinetic Typo²⁰⁾

19) 네이버, <http://jungle.co.kr>, 검색어 :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20) 네이버,정글, <http://blog.naver.com/rashu88/220513243916>, 검색어 :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2017.12.18.



<그림 9> Storyboards (Jan Avendano and white graphics)²¹⁾

4. 효제문자도(孝悌文字圖)의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표현방법

효제문자도를 통해 본 민화 속 효제도의 키워드는 순수한 그 시대의 서민애환을 느낄 수 있다. 무명 예술가의 손에 의해 그려진 저잣거리의 혁필화, 의리와 겸양, 나라를 향한 애국심과 신의를 바탕으로 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등 서민의 정서를 대표할 만한 여러 이야기들이 효제문자도(孝悌文字圖)라는 서체 영상 예술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메시지의 전달과 시각적 영상미, 그리고 사운드의 융합이 그 어떤 매체의 활용보다 더 깊이 있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예측한다. 효제도를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효제도의 개념을 파악하고 각기의 핵심어를 어떤 시나리오로 구성할지에 대한 방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각 아이덴티티가 지니고 있는 스토리를 정리하되 이를 시각화하는 표현방법을 어떤 기법으로 디자인 할지 선제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미디어는 인간의 가장 인공적인 감각인 시각을 중심으로 진화했다. 회화, 영화,

21) 핀터레스트, <http://www.janavendano.com/running/> 검색어 :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2017.12.18.

텔레비전, 컴퓨터 등 시각 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재현 장치의 중심에는 스크린이라고 하는 제3의 시각 공간이 존재해왔다. 특히 움직이는 이미지를 재현하는 미디어인 영화와 텔레비전, 비디오 등의 스크린은 관객의 움직임을 통제하면서 완전한 환상과 시각적 만족을 추구했다.²²⁾ 키네틱 작업의 구성 원리와 요소들이 효제도의 핵심어들과 어우러질 때 어떤 속도와 공간구성으로 풀 것인지 상고해야 하며, 사운드의 적절한 음원을 찾아내고, 음원의 속도에 맞춘 정렬방법과 타입페이스의 디자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효제도의 8개의 단어(孝, 悌, 忠, 信, 禮, 廉, 恥)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여 그 내용이 그래픽과 서체의 필법에 함의되어 시각적 영상미가 유려한 모션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면밀히 디자인 되어야한다.

IV. 결론

본 논문은 상기에 고찰한 효제문자도(孝悌文字圖)의 스토리 컨셉을 기반으로 하여 현대적인 영상미와 예술성이 가미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표현을 활용함에 있어 효제도 콘텐츠가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를 유려히 표현하는 홍보가치와 더불어 교육용 교재 활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효제문자도(孝悌文字圖)를 서체 영상 예술을 통해 표현하려면 메시지의 전달과 시각적 심미, 그리고 사운드의 융합이 그 어떤 매체의 활용보다 더 깊이 있게 표현될 수 있다. 우선 효제도의 개념을 파악하고 각각의 핵심어를 어떤 시나리오로 구성할지에 대한 컨셉과 키네틱 영상 이펙트와 사운드가 함께 융합되었을 때 기대되는 시각적 교육성과는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예측한다. 컨셉의 성격에 적합한 타이포 흐름의 속도(speed)와 움직임(motion), 서체(typeface)는 작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구조건이다. 또한, 적절한 타입페이스 디자인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

22) 이동은/손창민, 「시각 미디어의 진화에 따른 VR 매체 미학」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49호(2017), p 633, 2017.12.18.

해 효, 제, 충, 신, 예, 의, 염, 치(孝, 悌, 忠, 信, 禮, 義, 廉, 恥)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키워드는 비주얼 아이덴티티로 서체 또한 개발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성은 보다 구체화 되어진 스토리텔링으로 표현기법의 프로세스를 정해나가야 한다. 효제도가 시각적 영상미가 유려한 모션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캘리그래피나 타입페이스가 디자인되어 서체와 일러스트의 융합의 표현 컨셉이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선 후기 저잣거리에서 유행하던 혁필 표현기법을 연상해보면 효제문자도 역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의 표현기법을 어떻게 드라마틱한 감성으로 연출할지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혁필화의 자료가 극히 미비한 상황에서 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디자인 트렌드는 시대변화에 따른 인류의 관습과 정서, 정치와 경제 상황들의 변이에 의해 좌우된다. 앞으로 전통 콘텐츠의 아이템을 찾아내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정보디자인 산업에 유용한 콘텐츠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현 시대에 효제도와 같은 스토리 컨셉은 차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훌륭한 역사교육 스토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영상 이펙트 기술을 활용한 선조들의 효제문자도(孝悌文字圖)를 현대의 문자 표현 예술로 디자인하여 배포한다면, IT교재 개발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단순히 일러스트레이션의 현대적 표현이나 관광상품으로서의 상품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뉴미디어 분야의 영상기법의 융합을 통해 이러한 콘텐츠가 교육적으로도 재조명된다면 교육콘텐츠 시장에도 충분히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 나정태, 『민화그리기』, 대원사, p.66, 1998.
- 유홍준, 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8.
- 이동은/손창민, 「시각 미디어의 진화에 따른 VR 매체 미학」,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49호(2017, 12) p 633.

장원근, “춤추는 타이포그래피” , <http://jungle.co.kr/사이버교육/사이버 대학/>, 2017.11.15.
<http://blog.naver.com/rashu88/220513243916>, 2017.11.15.
<http://www.janavendano.com/running>, 2017.11.15.

ABSTRACT

A Study on practical use about Kinetic Typography of Ethics Character Picture of filial piety and brotherly love

Chung, Chi-Won

From the end of the 18th century to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late 19th century was a genre of a new art that was in contrast to the distribution between social class and low class, and it was also a popular culture that attempted to transform the late Joseon Dynasty's social clas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t is the origin of the Korean folk art, started as popular art concepts, use colorful techniques and decorations which doesn't yield to ordinary iconography. But, because of the attempt of this technique was used by lower class, the meaning of the idea was lowered from iconography to secular picture. Ethics character picture, passed on to the present from going through the upheaval cultural time, was started from secular picture and transformed into hyukpil time illustration, and it represented popular arts until now. This thesis aims to reflect the meaning, various visual expressions and the lifestyle of Ethics Character Picture of filial piety and brotherly love, which is a unique genre of popular arts. Also, propose to suggest about the kinetic typography using video media, and how the traditional ethics character picture ,which are combined with video technology, effects to the advertisements. These kind of attempts will show the world about the korea's traditional contents, and through the various media information it can be recreated as national symbolic

key words. Furthermore, its meaningful to pass down the noble and cultural Ethics Character Picture of filial piety and brotherly love to younger generations. And by realigning to modern expression, it is predicted that it will be significantly meaningful to pass down and make the younger generations to understand to spirit of the ancestors. This will allow various attempts to reconstruct various items of contents from Korea's traditional contents to new media content that merged with video media.

Keyword : Ethics Character Picture of filial piety and brotherly love, Kinetic Typography, Storytelling

정지원
한서대학교 디자인융합학과 교수
(31962)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Tel: 041-660-1488
cwchung@hanseo.ac.kr

논문투고일 : 2018.01.17.
심사종료일 : 2018.03.15.
게재확정일 : 2018.03.22.